

사회

# 쉬운 수능에 중상위권 진학 대혼란

## 정시인원 줄고 동점자 양산 변수 많아 치열한 눈치작전 하향안전 지원 늘듯

29일 발표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광주·전남지역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대입전략 수립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올해 수능 난이도 하락에 따라 중상위권 점수대 학생이 크게 늘어난 데다 수시모집 미등록 총원기간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시모집 정원이 대폭 줄면서 정시 경쟁률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광주진학지도교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수능의 경우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쉽고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고 언어·수리 영역에서는 상위권 변별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수능은 매우 어려웠던 작년보다 쉬워 표준점수 최고점이 영

역별로 3~14점 내려갔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언어 137점, 수리 139점, 수리 나 138점, 외국어 130점으로 언어는 3점 떨어졌고 수리 14점, 수리 나 9점, 외국어 12점이 하락했다.

광주지역 고교에서는 올해 쉬운 수능으로 인해 최상위권 학생들도 한두 개 문제로 등급이 내려앉은 현상이 나타나 중·상위권 학생 간의 점수 격차가 줄면서 전체 없이 '대학 가기 가장 힘든 해'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실제 외국어가 역대 가장 쉬운 '물 수능' 수준으로 3점짜리 한 문제 틀리는 것까지는 1등급이지만 그 이상 틀리면 2등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중상위권대 수험생

들이 대폭 늘어 진학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연중(송원고)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는 "수능이 쉽게 나와 고득점자·동점자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향 안전 지원이 늘고 눈치작전이 극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위권 대학들에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면 인기학과 경쟁률이 크게 상승해 불과 1.2점 사이에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즉, 학생들끼리 무작정 원하는 대학 학과에 소신 지원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예기다.

박 공동대표는 "올해는 유독 변수가 많기 때문에 표준점수, 등급별 인원 분포, 경쟁률을 따져 치밀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상위권 일부 학생들의 하향지원 가능성과 중상위권 학생들의 다수의 동점자 발생으로 인해 다소 하향 지원의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는 정시인원이 크게 줄고 수시 미충원으로 인한 정시 이월인원이 없다는 점도 올해 두드러진 변수다.

올해 정시 선발인원은 지난해의 15만 244명보다 5044명(3.4%) 줄어든 14만 5080명이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38만 2773명)의 37.9%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연세대 679명, 고려대 721명 등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넘어갔지만, 올해부터 수시 미등록 총원기간이 도입돼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줄어든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분석실장은 "수능이 예상처럼 쉬워지면 동점자가 많아져 좁은 범위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표준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기보다 대학별 동점자 처리기준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동점자가 늘어나고 중상위권이 넘쳐나면서 논술과 면접 등 남은 전형 요소가 변별력을 높여줄 요소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취업 상담하는 학생들

29일 조선훈 해오름관에서 열린 제4회 기업채용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구인 기업의 홍보부스에서 채용 담당자들과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돈 퍼주는 광주시교육청

## 심사·결산도 없이 민간단체에 수십억 지원

### 시의회 예산 심의서 지적

광주시교육청이 민간단체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사·결산도 없이 허술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교직원 업무경감 예산도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회근 교육위원장은 29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심의기구도 없이 민간단체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결산절차 처리도 하지 않는 등 허술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시 교육청의 민간이전 지원 사업은 모두 85개 사업에 24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서만의 결정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후 결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미첨부 등 결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회 진선거(민·북구 1) 예결위원장도 이날 예산심의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예산 편성지침을 어기고 구체적인 매뉴얼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직원 업무경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포집했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1일 기준 단가(4만3960원)와 다르고, 교원 업무경감 인력(무기계약직)지원 예산도 내년도에 52억원을 편성해 올해 대비 32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보조 인력 1일 기준단가의 경우 지난 9월 '2012년 예산편성 방침'을 토대로 책정했으며 당시는 교과부 임금 기준과 공무원 급여 인상이 통보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해명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 토지 추가보상 요구 직원 폭행 40대 구속

보성경찰청은 29일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의적으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직원을 상습 폭행하거나 사무실 집기류를 손괴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박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과수원을 가로질러 건설되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으로 3억여원을 받은 뒤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공사현장 진입로에 화물 차량과 굴삭기를 주차시켜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또 수차례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의자를 던져 집기류를 파손하고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 조폭이 가출 여학생 고용 보도방 운영 수천만원 챙겨

### 광산경찰, 2명 구속

가출 청소년 등을 유혹업소에 도우미로 소개시켜 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청은 29일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가출 청소년 등 여성 도우미들을 유혹업소에 알선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광주지역 모 폭력조직 조직원 신모(25)씨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가출청소년인 김모(16)양 등 여성 도우미 9명

을 고용해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일대 노래방 등 유혹업소에 소개해 주고 모두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 등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도우미로 고용한 김양 등 4명을 협박해 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 등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여성 도우미를 모집했으며, 여성 1명을 유혹업소에 소개해줄 때마다 1만원 가량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노래방 업주 정모(32)씨 등 9명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할 방침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불법조업 단속 피하려 중국 어선 철망 중무장

## 서해어업관리단, 100t급 8척 나포

황금어장인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이 쇠창살은 물론 선체 자체에 철망 울타리를 치는 등 진화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농림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29일 "단속 공무원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쇠창살과 함께 선체에 철망 울타리를 치고 저항한 중국선적 100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8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조업 혐의로 붙잡힌 이들 어선은 쇠창살과 함께 철망으로 중무장하고 있는 상태였다.

중국어선 단속 과정을 지켜본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9호 추경조 선장은 "중국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이 시

작되자 순식간에 길이 1.5m짜리 쇠창살 10여 개가 선체 측면에 부착되더니 높이 1~1.5m 높이의 철망이 선체를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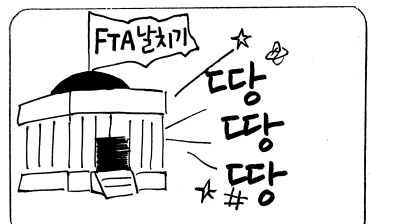
목포해양경찰은 중국 어선들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한 때 10여척 이상이 집단 계류한 채 저항하다가 1~2척을 남기고 도주하는 '미끼 수법'을 썼다가 최근에는 아예 철망으로 중무장한 채 필사적으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목포해경의 관계자는 "진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농림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최근 나포한 중국선적 100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에 쇠창살과 함께 처음 등장한 철망 울타리. 단속 공무원들은 철망 울타리 때문에 검문검색을 할 수 없다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 나원침 (8449) 김종두



FTA 발기 당당 당당 당당

박희태 국회의원 이사님 안장섭이유

이제야 알겠지만 서울에 당당한것 소문날까봐서 74억이래

### "최효종씨에 미안" 강용석, 고소 취하

서울 영등포경찰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개그맨 최효종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의 측에서 고소 취하장을 제출했다"며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아나운서들이 저를 상대로 제기했던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이 최근 기각됐다"며 "최효종 씨에게는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전했고 최효종 씨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 하나 살려고 최효종 씨를 이용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효종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법원은 여론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환뉴스

### 용문신 드러낸 채 목욕 조폭에 범치금

경찰이 용문신을 드러낸 채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즐긴 30대 조직폭력배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치금 5만원을 통고처분.

○29일 전주완산경찰청에 따르면 전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인 이모(31)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에 전주시 덕진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등과 오른 쪽 다리에 새겨진 용 문신을 드러낸 채 목욕을 해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목욕탕 안에 시민 20여명이 있어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해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했다"고 귀띔. /전부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2월 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중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아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명품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http://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